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조선로동당이 맡겨준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과제를 빛나게 수행한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승리산혁명사적관과 연혁소개실, 혁명사적물보존실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965년 5월 16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전신인 덕천자동차공장에서 생산한 《승리-58》형 화물자동차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문헌을 깊은 감회속에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의의깊은 사진문헌이라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련합기업소는 지난 기간 여러가지



형의 수많은 화물자동차들을 생산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에 거대한 공헌을 할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19차례, 위대한 장군님의 9차례의 현지 지도를 받은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자동차생산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서 생산한 새형의 5t급화물자동차들을 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드넓은 주차장을 짝 메우고 준비하게 서있는 새형의 5t급화물자동차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우리 로동계급이 자기의 힘을 믿고 떨쳐일어나 만들어낸 주체조선의 자동차들이라고, 불수록 힘이 나고 흐뭇하다고

하시면서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에게 전 투적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몸소 자동차에 오르시여 운전을 하시면서 5t급화물자동차의 성능과 기술적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자동차의 발동소리가 고르롭고 변속도 잘되며 기관상태가 대단히 훌륭하다고 못내 기뻐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이처럼 어려웠던 전후시기 중증첩첩한 시련을 뚫고 맨주먹으로 40일만에 《승리-58》형 자동차를 만들어낸 전세대 로동계급의 그 정신, 그 기백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당에서 정해준 기간에 새형의 화물자동차들을 훌륭히 생산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불수록 멋있고 정이 드는 우리 식의 5t급화물자동차들은 만리마시대에 탄생한 귀중한 재보이라고 하시면서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고 발악할수록 조선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은

더욱더 강해지고있으며 세상을 놀래우는 위대한 기적을 낳고있다는것을 새로 만든 5t급화물자동차들이 실증해주고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립직장, 정밀가공직장, 기관직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가 다음해 수행해야 할 화물자동차생산과제를 주시였으며 련합기업소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력을 강화하자면 자동차를 자체로 생산하는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화물자동차를 팡팡 생산할수 있도록 련합기업소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현대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세계적수준의 화물자동차공업기지, 개발창조형자동차생산기지로 전변시키자면 모든 생산공정을 고도로 현대화, 주체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개건현대화목표를 야심만만하게 높이

로 발양시키는것과 함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인것만큼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애써 마련한 강유력한 공업토대가 있으며 당에 무한히 충직한 로동계급이 있기에 점령 못할 요새란 없다고 하시면서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까지 개건현대화하면 우리 나라 료전기계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될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개건현대화과업을 훌륭히 실현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판 문 점 의 리 성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은 공화국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이 가로놓였던 시기였다. 반공화국적대세력이 군사적위협공갈과 경제적제재의 도수를 높이면서 짧아서 3일, 혹은 3달, 길어서 3년안에는 붕괴된다는 《3. 3. 3붕괴설》을 운운하며 도전하여나섰다. 설상가상으로 몇해째 거듭된 자연재해로 식량난을 겪게 되었고 또한 원료난, 동력난으로 공장들이 멎어섰다.

그야말로 삶이나, 죽음이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처하였던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최전선길에 계시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 의해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판문점을 찾으신것은 주체85(1996)년 11월 24일이였다.

적아가 총구를 맞대고있고 훔날리는 가랑잎소리에도 방아쇠에 긴장이 서린다는 최전방인 판문점.

미제가 항복서에 도장을 찍은 력사의 장소로 된 때로부터 이곳에서는 수십년간 치렬한 대결전이 벌어졌다. 침략을 노리는 총구에서 불꽃이 튀어오른적 한두번이 아니였고 전쟁을 촉발시킬 돌발적인 사태들도 발생했던 최전연이였다.

그때 동행한 일군들은 것처럼 위협천만한 판문점에 절대로 가실수 없다고 간절히 아뢰였건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금 정세가 긴장한데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인들에게 신심도 주어야 한다고, 나는 빨찌산의 아들이라고, 우리 전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나는 그 어디라도 가야 하고 또 가고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결연히 판문점시찰의 길에 나서시였다.

이것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지켜 장군님 단행하신 최전연으로

의 시찰길이였고 력사적 장거였다. 그날 판문점에 오신 장군님께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친필비를 보고 또 보시며 우리는 수령님의 념원과 의지대로 조국을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고 결연한 통일의지를 담아 선언하시였다. 그리고 판문점초병들을 만나시여서는 노예가 되겠는가, 자주적근위병이 되겠는가라는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판문점에 올린 위대한 령장의 선언은 아버지주석님의 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실 엄숙한 맹세였고 전체 군대와 인민을 조국수호를 위한 성전으로 불리일으키신 위대한 수호자의 애국의 호소였다.

당시 남조선의 주요신문들은 《우리 민족에게 통일선물을 안겨주시려는 민족적거사》, 《조국통일의 봉화를 지켜올리신 민족의 일대 장거》,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전환시키신 력사적책거》라고 대서특필하였고 온 겨레는 경탄과 찬사를 터놓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판문점시찰 소식을 뒤늦게야 전해들은 미군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줄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는 판문점초병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 85 (1996)년 11월

지에 생벼락맞은듯이 허둥대었다.

《발밑에서 원자란이 터진것같은 심정이였다.》, 《지옥행 열쇠를 받아안았다.》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온것은 그 당황망조상을 잘 보여주고있다. 영문을 알수 없는 환안개미 미국 의 최신형 《GPS체계》를 순간에 머저리로 만들었다는 전설같은 이야기도 이때에 생겨난 것이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판문점시찰은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안아오시려는 불세출의 백두령장의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을 온 세상에 보여준 특기할 사변으로 되였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

렀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과 침략전쟁책동으로 하여 최대로 격화되어있다. 미국은 공화국의 자위를 위한 정정당당한 핵무력강화조치를 결코들며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식으로 《위협》나발을 계속 불어대면서 제재와 북침전쟁도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대통령이라는 트럼프의 입에서 《화염과 분노》니, 《완전과파》니 하는 미친 망발들이 거침없이 튀어나오고 《군사적선택》, 《예방전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무력증강, 전쟁연습소동들이 미친듯이 벌어지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은 조선반도수역에 3개의 항공모함타격단까지 끌

어들이 합동군사연습의 광기를 부리였다.

미국의 끈질기고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협천만한 정세가 조성되어있고 평화를 바라는 인류는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있다.

그러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광기는 상대를 잘못보고 날뛰는 어리석은 추태이고 자멸의

전주곡이다.

자기 령도자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면서 반미최후대전의지로 가슴 불태우는 천만군민이 있으며 최강의 무기인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켓도 보유한 강력한 핵무력이 있어 조선은 조금도 끄떡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조선의것이다.

지금 병진의 기치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진두에는 또 한분의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그이께서는 탁월한 령도로 창조와 전변의 위대한 력사를 수놓아오시였고 공화국을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

로 밀떠세우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 통일을 안아오는 가장 탁월하고 현명한 애국애족의 령도이다.

그이께서는 5년전 3월 력사의 땅 판문점을 시찰하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하실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를 천명하시였다.

그때에도 정세는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의 대규모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전쟁의 도화선이 라들어간던 위협천만한 때였지만 백두령장께서는 대낮에 판문각로대에도 나가시여 쌍안경으로 적진을 굽어보시며 싸우는 군대와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주시고 적대세력들에게는 공포와 전율을 안기시였다. 그리고 정전담판회의장과 정전협정조인장을 비롯한 판문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미제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을 놀래운 영웅조선의 전승업적을 대대로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조인이 아니라 항복서에 도장을 찍게 할것이라고 선언하시였다.

판문점에서 올린 그날의 선언에는 조선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건드리는자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으며 침략세력이 감히 불을 지른다면 1950년대의 승리전통을 이어 세기를 이어오는 미국과의 대결전을 최후승리로 결속하시려는 선군령장의 단호한 결심과 의지가 어리여있다.

령장의 결심과 의지는 곧 조선의 승리이다.

세인이 찬양하고 악의 제국인 미국도 두려움에 떠는 천출명장을 높이 모시여 조선은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진

로 밀떠세우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 통일을 안아오는 가장 탁월하고 현명한 애국애족의 령도이다.

그이께서는 5년전 3월 력사의 땅 판문점을 시찰하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하실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를 천명하시였다.

그때에도 정세는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의 대규모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전쟁의 도화선이 라들어간던 위협천만한 때였지만 백두령장께서는 대낮에 판문각로대에도 나가시여 쌍안경으로 적진을 굽어보시며 싸우는 군대와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주시고 적대세력들에게는 공포와 전율을 안기시였다. 그리고 정전담판회의장과 정전협정조인장을 비롯한 판문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미제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을 놀래운 영웅조선의 전승업적을 대대로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조인이 아니라 항복서에 도장을 찍게 할것이라고 선언하시였다.

판문점에서 올린 그날의 선언에는 조선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건드리는자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으며 침략세력이 감히 불을 지른다면 1950년대의 승리전통을 이어 세기를 이어오는 미국과의 대결전을 최후승리로 결속하시려는 선군령장의 단호한 결심과 의지가 어리여있다.

령장의 결심과 의지는 곧 조선의 승리이다.

세인이 찬양하고 악의 제국인 미국도 두려움에 떠는 천출명장을 높이 모시여 조선은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진

언제나 조국통일을 생각하시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지면 살수 없는 유기체라고 하시며 언제나 통일된 조국을 그려보시였다.

조선은 반드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나는 언제나 하나의 조선만을 생각하지 두개의 조선을 생각해본적이 없다, 조선은 둘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이다라고 하신 장군님의 심중에는 언제나 통일념원과 의지가 가득차있었다.

주체69(1980)년 여름이였다. 동해안지구를 현지도도 하신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느날 바다가를 찾으시였다. 바람 한점 없고 맑게 개인 그날 백사장을 거니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동행한 일군에게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언제나 통일을 생각하며 일하는것이 중요하다. 아침에 깨어나도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하고 저녁에 잠들 때에도 통일을 위한 생각을 하여야 한다.

장재한 바다가를 부감하시는 여가시간에도 민족과 통일을 생각하신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속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은 통일과 잇닿아있어야 한다고,

공장을 하나 건설해도 통일에 보탬을 줄 생각을 해야 하고 만풍년을 마련해도 통일의 밑천을 굳건히 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분별로 당하는 겨레의 아픔과 불행을 두고 심려하시며 어느 하루, 어느 한시도 조국통일문제를 잊으신적없으신 장군님이시였다.

주체74(1985)년 9월 어느날이였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은 우리의 가장 성스러운 사업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임무라고 하시면서 모든 일군들이 언제나 조국통일에 대하여 생각하며 일해야 한다고,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울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야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한다고, 우리의 모든 생각은 조국통일과 잇닿아있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사업은 조국통일로 지향시켜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로지 조국통일에 대한 일념과 의지로 온넋을 불태우시며 통일조국의 미래를 락관하시였다.

본사기자

열렬한 민족애와 통일의지를 지니시고

외세에 의하여 빚어진 민족분렬은 70년이상이나 지속되고있다. 조국통일성업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강성번영하는 통일국가를 건설하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그이께서는 다섯해전 안팎의 반통일세력이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과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고있을 때 판문점시찰을 단행하시여 적대세력들의 반평화, 반통일책동에 철추를 내리시고 겨레의 통일의지를 북돋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언제나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조국통일을 위한 끝없는 헌신으로 이어져있다.

그이께서 주체101(2012)년 4월 위대한 주석님탄생 100돐 경축 열병식에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 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

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온 겨레에게 통일조국의 미래에 대한 굳은 확신을 안겨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탁월한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공화국의 자위적책역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시여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민족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내외반통일세력에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온 민족을 조국통일성업실현으로 정력적으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중대제안을 비롯한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고 북남고위급접촉이 이루어지고 전쟁으로 치닫던 위협천만한 정세가 평정되어 평화와 안전이 수호되게 되었다.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하루빨리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

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여 민족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민족자주의 기치,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며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도록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데 대한 조국통일방침들은 겨레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곧바른 길을 명시한것으로 하여 겨레의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받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호소에 접한 범민련유럽지역본부 의장 리준식동포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사업총화보고는 꿈에도 그리던 자주통일강국의 휘황한 설계를 펼쳐놓았다. 력사의 필연으로 반드시 오고야말 통일일이 우리 겨레의 진정한 영광이고 영원무궁한 행복이라 사시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열렬한

민족애와 숭고한 덕망을 지니신 민족의 아버지이시다.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전통을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몇해전 세계평화련합총재 문선명선생이 병환으로 운명하였을 때에는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여 조전과 화환을 보내시고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보내시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하여 노력한 그를 잊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의 사망 1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미망인인 세계평화련합총재 한학자선생에게 추모의 말씀을 보내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은 비범한 예지와 뜨거운 민족애, 숭고한 덕망을 지니시고 온 민족을 통일애국의 길로 현명하게 이끄시는 민족의 걸출한 령도자,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우리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아침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민족애와 숭고한 덕망을 지니신 민족의 아버지이시다.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전통을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몇해전 세계평화련합총재 문선명선생이 병환으로 운명하였을 때에는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여 조전과 화환을 보내시고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보내시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하여 노력한 그를 잊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의 사망 1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미망인인 세계평화련합총재 한학자선생에게 추모의 말씀을 보내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은 비범한 예지와 뜨거운 민족애, 숭고한 덕망을 지니시고 온 민족을 통일애국의 길로 현명하게 이끄시는 민족의 걸출한 령도자,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우리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아침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민족애와 숭고한 덕망을 지니신 민족의 아버지이시다.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전통을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몇해전 세계평화련합총재 문선명선생이 병환으로 운명하였을 때에는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여 조전과 화환을 보내시고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보내시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하여 노력한 그를 잊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의 사망 1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미망인인 세계평화련합총재 한학자선생에게 추모의 말씀을 보내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은 비범한 예지와 뜨거운 민족애, 숭고한 덕망을 지니시고 온 민족을 통일애국의 길로 현명하게 이끄시는 민족의 걸출한 령도자,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우리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아침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민족애와 숭고한 덕망을 지니신 민족의 아버지이시다.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전통을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몇해전 세계평화련합총재 문선명선생이 병환으로 운명하였을 때에는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여 조전과 화환을 보내시고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보내시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하여 노력한 그를 잊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의 사망 1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미망인인 세계평화련합총재 한학자선생에게 추모의 말씀을 보내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은 비범한 예지와 뜨거운 민족애, 숭고한 덕망을 지니시고 온 민족을 통일애국의 길로 현명하게 이끄시는 민족의 걸출한 령도자,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우리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아침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민족애와 숭고한 덕망을 지니신 민족의 아버지이시다.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전통을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몇해전 세계평화련합총재 문선명선생이 병환으로 운명하였을 때에는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여 조전과 화환을 보내시고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보내시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하여 노력한 그를 잊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의 사망 1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미망인인 세계평화련합총재 한학자선생에게 추모의 말씀을 보내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은 비범한 예지와 뜨거운 민족애, 숭고한 덕망을 지니시고 온 민족을 통일애국의 길로 현명하게 이끄시는 민족의 걸출한 령도자,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우리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아침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민족애와 숭고한 덕망을 지니신 민족의 아버지이시다.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전통을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몇해전 세계평화련합총재 문선명선생이 병환으로 운명하였을 때에는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여 조전과 화환을 보내시고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보내시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하여 노력한 그를 잊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의 사망 1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미망인인 세계평화련합총재 한학자선생에게 추모의 말씀을 보내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은 비범한 예지와 뜨거운 민족애, 숭고한 덕망을 지니시고 온 민족을 통일애국의 길로 현명하게 이끄시는 민족의 걸출한 령도자,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우리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아침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 지침

조국통일3대헌장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래 동안 존재하여온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온 겨레의 지향에 맞게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 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고있는 불멸의 통일대강이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온 겨레의 의사와요구가 집대성되어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 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기야 합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조국통일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민족자주는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조국통일문제가 바로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만큼 나라의 통일은 마땅히 우리 겨레가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뤄내야 한다.

평화통일은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조국통일이 평화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민족이 참혹한 재난을 당하게 된다.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그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조국통일 위업은 그 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민족대단결을 이룩할 때에만 우리 민족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결정적력량으로 될수 있다.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북과 남이 7.4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이 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굳어져온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고 누구도 자기의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어느 한쪽의 제도에 의한 통일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통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분열을 심화시키고 돌이킬수 없는 민족적재난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 민족의 요구와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가장 공정하게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량방제방식의 통일을 이룩하는 길밖에 없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융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어있다.

이렇듯 조국통일3대헌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어있으며 북과 남의 화해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승

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어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속망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6.15시대에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격동적인 사변들을 안아오며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추동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도 조국통일3대헌장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방침을 제시하여주시였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량방제실현에 관한 조국통일방침은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진로를 뚜렷이 명시하고있다.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어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이야말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투쟁강령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통일위업 실현의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관철해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거기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최 광 혁

령장의 담력과 지략 (5)

도 발 과 강 라

미국이 해마다 강행한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 1983년에는 더욱 무모해지였다. 근 20만명에 달하는 병력과 수많은 무장장비와 핵전쟁수단까지 동원되였다. 조선반도 정세는 다치면 터질듯 팽팽해지였다.

1월 어느날 적정자료를 보고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적들이 합동군사연습을 지금까지 해오던 훈련에 비할바없이 큰 규모로 하려고 책동하고있는데 우리는 적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고 하시였다.

미국의 《팀 스피리트 83》 합동군사연습강행으로 첨예한 정세가 조성된 그무렵 공화국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소집되였다.

회의에서는 전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할데 대한 문제가 결정되었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로 오늘 2월 1일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그이의 정확한 판단과 단호한 결심에 동감하시며 그 방안에 대해 동의 하시였다.

미국이 해마다 강행한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 1983년에는 더욱 무모해지였다. 근 20만명에 달하는 병력과 수많은 무장장비와 핵전쟁수단까지 동원되였다. 조선반도 정세는 다치면 터질듯 팽팽해지였다.

1월 어느날 적정자료를 보고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적들이 합동군사연습을 지금까지 해오던 훈련에 비할바없이 큰 규모로 하려고 책동하고있는데 우리는 적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고 하시였다.

미국의 《팀 스피리트 83》 합동군사연습강행으로 첨예한 정세가 조성된 그무렵 공화국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소집되였다.

회의에서는 전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할데 대한 문제가 결정되었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로 오늘 2월 1일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그이의 정확한 판단과 단호한 결심에 동감하시며 그 방안에 대해 동의 하시였다.

그리하여 신문, 통신, 방송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전체 인민군부대들과 인민경비대, 로농적위대와 붉은청년군위대 대원들에게 2월 1일

부터 4월 중순까지 준전시상태에 들어갈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였다는 최고사령부보도를 일제히 전하였다.

세계의 이목은 조선에 집중되였다. 이러한 때 인민군부대들에 적들의 군사연습이 《실전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실동훈련으로 넘어갈데 대한 최고사령관명령이 하달되였다.

3년전 《팀 스피리트 80》 합동군사연습때에는 적들이 《실전단계》의 훈련을 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부대들의 대기동수에 붙어넣었다면 이번에는 적들의 기동에 앞서 주동적인 훈련을 조직함으로써 《선제타격》을 노리는 적들을 완전히 제압하는것이였다.

적들은 공화국북반부의 후방지대에 그 무슨 《전선》을 형성한다고 하면서 《북전대》 투하훈련에서 훈련의 절정을 장식해 보려고 꾀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 대처하는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월등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대응훈련을 진행해야 할 지침을 찍어주시였다. 드디어 적들이 《북전대》 투하훈련을 하는 날이였다.

적들의 《북전대》가 투입될 지점을 미리 차지하고있던 인민군대와 로농적위대와 붉은청년군위대원들은 현대적인 무기로

무장하고 적 《북전대》 소멸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였다. 그때 적들은 공화국의 타격훈련과정을 정찰위성을 통하여 촬영하였는데 저들이 가상했던 지점과 공화국의 무력이 대응훈련을 진행한 지점이 신통히도 같다는것을 알게 되자 기자들과 장성들 사이에 이런 문답이 오갔다.

《이것이 실동훈련이 아니고 실전이였다면 어느쪽이 강타를 먹고 어느쪽이 케이오당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무자비한 화력 타격앞에서는 케이오되는 것이 아니라 만신창이 된다는것을 당신들이 모른다 말인가?》

훈련을 지휘한 현지 미군부우두머리들은 기자들의 야유보다도 어찌서 예정한 《북전대》 투하지점이 공개되었는가라는 미국방성의 추궁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결국 《팀 스피리트 83》 합동군사연습은 공화국의 위력에 위압당하여 맥빠진 연습으로 되고말았다.

미국의 무분별한 침략전쟁도발책동에 때로는 선손을 써서, 때로는 불의의 대기동으로 짓부셔버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군사적지략은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할수도 예측할수도 없는 비범하고 명활무쌍한 백전백승의 지략, 천재적인 군사적묘술이였다.

본사기자 주 일 봉

노래로 보는 인민의 신념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착취와 압박, 사회적불평등이 없는 리상사회를 건설할것을 희망하여 왔다.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의 이 리념은 마침내 지구상에 첫 사회주의국가를 탄생시켰고 또 많은 나라들을 그 길로 이끌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세상을 둘러보면 인민대중중심의 진정한 사회주의는 오직 공화국뿐

《세상에 부림없어라》

돌이켜보면 나라없던 그 세월 우리 겨레가 부르던 노래는 《눈물젖은 두만강》, 《봉선화》와 같이 눈물의 노래, 슬픔의 노래뿐이였다. 일제에 의해 팔과 글, 성과 이름마저 빼앗겼던 불쌍한 우리 민족에게 그 무슨 진정한 삶의 노래가 있었으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신 그때부터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아름다운 삶의 노래를 마음껏 터칠수 있었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된 사회주의사회에서 울려 퍼진 모든 노래들은 기쁨의 노래, 행복의 노래였다. 공화국에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지 얼마 안되던 때인 주제50(1961)년에 창작된 노래 《세상에 부림없어라》.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뼉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
이 노래에는 사회의 모든 성

이다. 그것은 지난 수십년간 이 땅우에 끝없이 울려 퍼진 사회주의에 대한 노래들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시대를 진감시키는 명곡에는 반드시 인민이 심장으로 체득한 생활의 진리가 담겨지기에 때문이다.

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이 진실하게 비껴있다.

참으로 공화국인민들은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인민적시책아래 세상에 부림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려왔다.

위대한 주석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날이 꽃피어나는 인민들의 보람찬 생활, 끝없는 행복을 반영한 노래 《사회주의락원일세》.

《봄이면 진달래 붉게붉게 피고 났고넓은 들관엔 오곡백과 설레네》라는 노래를 부르느라 주석님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된 사회주의협동전야가 그림같이 안겨온다.

노래 《세금없는 우리 나라》, 《세상에 이런 나라 더는 없어라》의 구절구절을 되새기느라 주석님의 은덕속에 세금없는 나라의 주인으로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공화국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이 안겨온다.

공화국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펼쳐지는 생활의 매 순간순간이 그대로 기쁨이고 행복이였다.

이 기쁨과 행복을 과연 어느 분이 주시였던가.

오늘도 명곡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창작동기로 된 해 주혁명학원(당시) 원아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잊을수 없다.

주제48(1959)년 5월 어느날 몸소 학원을 찾아주신 위대한 주석님께서 원아들이 생활하고있는 기숙사에도 들리시여 방이 좁지 않으나, 이불이

《사회주의 지키세》
20세기말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기발이 내리 위치자 적대세력들은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면서 공화국에 대한 정치군사적압박의 도수를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높였다.

두툼한가, 어떤 밥을 먹는가, 고기는 늘 먹는가고 하시며 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그로부터 한 달도 못된 또 어느날에는 평양 견학을 가는 원아들을 길가에 서 보시고 그들의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따듯한 사랑을 부어주신 자애로운 주석님이시였다.

설움중의 설움이 부모없는 설움이라고 하였지만 부모없는 원아들의 가슴속에서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는 웨침이 터져나왔다.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송가와도 같은 이 노래는 원아들의 행복한 생활, 우리 인민들의 복된 삶을 담아 창작되었던것이다.

하기에 이 노래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오늘날도 끝없이 울려 퍼지고있다.

《사회주의는 우리거야》, 《사회주의 내 조국아 너를 굳게 지키리》, 《사회주의는 우리 생활 우리 생명》, 《세상에 하나여라》, 《이 땅의 주인들은 말하네》...

공화국인민들은 이 노래들을 부르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였으며 조국의 맑고 푸른 하늘가에 우주강국건설의 포성도 우렁차게 울리였다.

하다면 공화국인민들의 불굴의 이 신념은 과연 무엇에 기초하고있는것인가.
노래 《사회주의 지키세》에는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오직 령도자만을 믿고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아가려는 천만군민의 신념이

하여 더 많은 시련의 고비를 넘으며 고귀한 피와 땀을 바쳤다고, 우리 인민은 혁명적열정과 창조적로동으로 세기적락화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누구나 다 근심걱정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락원을 건설하였다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자기 손으로 창조한 행복은 언제나 귀중한 법이다.

그래서 그 행복을 지켜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려하는것이 공화국인민들의 굳은 신념이고 의지인것이다. 그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가사가 되고 선률로 되어 이 땅우에 힘차게 울려 퍼졌다.

《사회주의는 우리거야》, 《사회주의 내 조국아 너를 굳게 지키리》, 《사회주의는 우리 생활 우리 생명》, 《세상에 하나여라》, 《이 땅의 주인들은 말하네》...

공화국인민들은 이 노래들을 부르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였으며 조국의 맑고 푸른 하늘가에 우주강국건설의 포성도 우렁차게 울리였다.

하다면 공화국인민들의 불굴의 이 신념은 과연 무엇에 기초하고있는것인가.
노래 《사회주의 지키세》에는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오직 령도자만을 믿고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아가려는 천만군민의 신념이

《향도성 따라서》, 《향도성 두리에》, 《향도성 받들어》라는 가사들에 두드러지게 부각되어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든든한 배심, 이것이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의 찬가들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사상이다.

하늘땅이 열백번 변한대도 오직 사회주의한길로 변함없이 나아가려는 이 신념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태어나는 사회주의에 대한 노래들에 더욱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
주체의 당기 날리며 나가는 우리 사회주의의 강국을 일떠세 우리

향도의 당이 펼친 찬란한 미래로 세대를 이어가며 곧바로 가리라

...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세상에 들도 없는 행복의 요람이며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들어 사회주의길로 역 세계 나아가려는것이 공화국인민들의 철석같은 의지이다.

이 땅의 천만군민은 어제도 그러했지만 오늘날도 앞으로도 영원히 사회주의에 대한 노래들을 높이 부르며 빛나는 집,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켜주시 행복넘친 보금자리인 사회주의조국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끝없이 빛내어나갈것이다.

김 금 희

미국은 극악무도한 반공화국적대소동에 광분할수록 그만큼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성명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미국대통령 트럼프의 대조선적대광기가 극도에 달하고 있다.

지난 21일 트럼프는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집권후 첫 새없이 떠들어대온 우리 공화국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끝끝내 강행발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이날 트럼프는 우리에게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이미 오래전에 취해야 할 조치였다니, 북은 핵으로 전세계를 위협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 국제적인 테러행위를 지원한다는 《살인정권》이라느니 하는 날강도적인 꾀변을 마구 늘어놓으면서 이번 조치에 이어 북은 물론 그와 거래하는 나라들과 개별적인 물물에 대한 최고수준의 추가제재와 압박조치가 신속 취해질 것이라고 쉼처했다.

미국무성과 국회것들은 트럼프의 《테러지원국》 재지정발표를 놓고 북에 대한 제3국의 지원을 철저히 차단하고 기존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여러 활동을 금지시키기 위한 결정, 북정권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중대한 발걸음》, 북을 대화로 유도하

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라고 입을 모아 떠들어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미재무성것들은 때를 기다린듯 다음날로 북의 핵, 미사일개발과 관련한 불법자금류입을 차단한다는 구실을 내걸고 지난 9월에 이어 또다시 해상운수와 관련된 기업들, 선박들을 추가제재대상으로 지정발표하는 횡포를 감행하였다.

방탕한 주먹장래에 늑거리를 찌르려는 격으로 일본의 간교한 아베패거리들과 제정신을 잃은지 오랜 남조선당국들도 트럼프의 이번 폭거에 대해 지지환영이니, 기대니 하며 발빠르게 상전의 비위를 맞추며 설쳐대고 있다.

그야말로 미친개무리들의 발자취인 지랄중세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존엄높은 평화애호국가인 우리 공화국은 이미 모든 형태의 테러행위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천명하였으며 주국제반테러협약들에도 가입하여 테러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국제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나가고 있다.

테러가 강패국가인 미국에 생존수단으로 되지만 우리 공화국은 그와 아무런 인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패거리들이 우리 공화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폭거를 감행한것은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깡그리 말살하려는 또 하나의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만행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물음은 그 자체가 아무런 근거도 타당성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정치적도발이다.

미국무성것들이 이번 폭거의 범죄적정체가 드러날가봐 뒤가 썩었던지 매우 상징적인 조치로서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것이라느니, 아직도 외교적해결을 희망한다느니 하는 궁색한 녀두리를 늘어놓는가 하면 우리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근거자료에 대해서는 《기밀》이라고 하면서 내놓지 못하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뚜렷히 보여주고 있다.

어처구니없는것은 세계도 처에서 국가전복과 살인, 파

괴, 략탈을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는 국제테러왕초인 미국이 마치 테러감독관처럼 그 누구에게 《테러지원국》 감투를 마구 씌우는 광기를 부려대며 세상을 경악케 하고있는 것이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원한의 땅 신천을 비롯하여 우리 공화국북반부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미제야수들이 감행한 짐승도 낮을 불행 대학살만행과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군 무리들이 저지르고있는 치명적인 반인륜적범죄들은 살인악마의 제국 미국의 흉상을 만천하에 고발해주고 있다.

백주에 주권국가들에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반정부세력들을 부추겨 정권전복도 서슴지 않는것이 바로 미국이다.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감옥과 관따나모미해군기지감옥에서 미국이 감행한 수감자들에 대한 야만적인 고문만행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천하에 돌도 없는 이런 흉악테러범죄자들이 감히 우리에게 《테러지원국》 재지

정이니 하며 주체넘게 놀아대는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세기적인 비극이 아닐수 없다.

미친개도 죽을 때에는 뒤를 찌르고 죽는다고 하였다.

우리는 트럼프의 이번 폭거가 우리의 국가핵무력건설의 최종완성을 더이상 막을수 없게 된 미국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라는것을 모르지 않는다.

또한 트럼프식 《미치광이 전략》과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합리화하고 미국내부와 국제사회에서 터져나오는 비난을 견제하며 우리에게 대한 제재와 압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나라들을 다그쳐대보려는 그 흉악한 속내도 다 꿰뚫어보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광기는 막다른 궁지에 몰린 미국의 가련한 신세와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의 날강도적이며 범죄적인 정체를 더욱 드러낼뿐이다.

지금 우리 공화국을 감히 《살인정권》으로 매도하며 《테러지원국》 재지정이라는 폭거를 서슴없이 감행한 늑다리미치광이 트럼프와 강패제국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증오와 멸적의 기상은 하늘을 찌르며 무섭게

폭발하고 있다.

트럼프가 또 한차례의 선전포고와 같은 특대형도발을 해온 이상 그에 대해 수수방관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미국은 무섭게 치솟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와 증오가 미국이 바라지 않는 보복으로 이어질수 있다는데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우리를 《악마화》하여 고립압살하려고 발악하면 할수록 미국이 그만큼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부질없는 대조선제압박소동과 강도적인 《테러지원국》 재지정조치를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미국의 행동여부에 따라 우리의 차후 대응조치가 결정되게 될것이라는것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 기회에 미국의 폭주각시, 총견이 되어 상전의 비위를 맞추느라 여념이 없는 일본의 아베일당과 남조선당국에도 앞날이 우려된다면 더이상 구질스럽고 팔사납게 놀아대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경고한다.

주제106(2017)년 11월 22일
평 양

지난 11월 17일 미국의 위싱턴에서는 30여개 아프리카나 외무장관들의 무역, 안보관련회의가 있었다. 여기서 미국무장관 킬러슨은 아프리카나 외무장관들에게 북조선을 더욱 고립시킬수 있도록 외교관계를 격화하고 경제관계를 단절하라고 강박해나섰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외교관계는 타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들사이에 맺는 관계로서 여기에 누가 중립나타나서서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훈시하고 강박할수도 없다. 그렇게 하는 자체가 상대국의 주권에 대한 우롱이고 침해이다.

그런데 미국은 한두 나라도 아니고 세계의 각지를 돌아다니며 외교분야에서도 샷대질을 하듯 강박과 협박을 일삼고 있다.

이번에 미국무장관은 《북조선이 진정한 안보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현 로선을 버리고 다른 미래에 대한 의미있는 대화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를 포함한 모든 나라가 평화적인 대북조선 압박작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조선을 포함한 안보문제에 아프리카협력국들의 더 큰 지원을 강조하고있다.》, 《북조선의 압박을 위한 추가조치로서 외교, 무역관계 격하, 자국내 북조선노동자추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퍼대를 동구었다.

흡사 길거리 골목대장을 보는듯 하다.

그래도 세계외교무대에 서 제노라고 으시대는 미국

이 수십여개 나라 외무장관 들앞에서 이와 같은 협박외교, 강박외교에 매달린것을 보면 미국의 외교라는것도 알만 하다. 이것은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결전, 공화국과의 1대 1대결에서 미국이 스스로 패배하였음을 인정했거나 다름이 없다.

공화국과의 대결에서 미국이 얼마나 힘이 빠지고 궁색해졌으면 아프리카나 나라들에까지 매달려 반공화국제압박에 공조하라고 협박하고 강박해나섰겠는가.

미국은 아마도 덩치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관계없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을 저들이 때려모는대로 움직이는 마소로 착각하고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때로는 집요한 착각이 엄청난 화를 불러올수 있다.

지금 아프리카나라인민들은 주권국가에 대한 무차별폭격과 테러를 감행하고 나라간, 종족간 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상자와 피난민을 발생시킨 미국에 대한 저주와 원한으로 치를 떨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나라인민들에 이어 대조선포위망을 아프리카로 확대하여 모든 나라들을 저들의 반인륜적최악의 공범자로 만들려고 모지름을 써보아 이는 기필코 진보적인류의 정의로운 반대배적에 부딪쳐 랑패와 쓴맛만을 보게 될뿐이다.

미국이 제아무리 온 세상을 들쭉서대며 발악해도 패배자의 궁색한 처지만 더 부각시킬뿐 자주의 성세, 인류의 표대로 빛을 뿌리며 최후승리로 나아가는 조선의 앞길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김 해 성

최근 미국에서 《dotard》라는 단어가 만사람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화제거리로 되고있다. 옥스포드영어사전에 이 단어에 대해 《정신능력이 저하된 사람, 특히 약하거나 어리석은 노인》으로 정의되어있다. 이 단어는 영국의 작가였던 웨이크스피어가 즐겨쓰던 고어로서 현대미국인들은 잘 쓰지 않는 낱선 단어이다.

이런 단어가 미국에서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있는것은 그것이 곧 늑다리미치광이인 트럼프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공화국에서 트럼프를 가리켜 《dotard》라고 표현한 이후 미국인들은 이 단어가 트럼프에게 신봉자가 어울린다고 하면서 누구나 할것없이 즐겨쓰고 있다.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긴다고 했다. 이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도 인간오작품, 늑다리미치광이인 트럼프의 진면모를 충분히 알수 있다.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지금까지 미치광이의 지랄발작으로 사람들을 아연실색케 한 몇가지 사실들만 돌아켜보자.

인류를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마련된 파리기후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는가 하면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도 저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걸어차고 나오는 불망나니짓을 서슴없이 감행한것이 바로 트럼프이다. 자기에 대한 비난의 도수를 높이고있는 언론들에 대한 백골기로 백악관기자인 자녀들에게 《언론이 이렇게 예쁜 아

트럼프의 대명사 - 《늑다리미치광이》

이들을 낳았다니 믿을수 없다.》는 상식이하의 발언까지 하여 만사람의 웃음을 맞기도 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하루가 멀다하게 듣기조차 거북한 악담들만 쏟아내는데도 유명하다. 오죽했으면 최근 트위터회사에서 지금까지 140자로 제한했던 문자수를 두배로 늘인다고 발표하자 미국인들속에서 《트럼프의 막말을 더 늘리고 대내정책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조치이다.》, 《현재 트럼프의 즉흥적인 트위터문자때문에 외교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문자수가 두배로 늘어나면서 외교정책의 복잡성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었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

겠는가. 지금 트위터에서 《dotard》를 검색하면 트럼프의 공식계정이 같이 뜨는것으로 하여 미국내에서는 《dotard=트럼프》가 기정사실로 되고있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트럼프는 지난 70년간의 역대대통령들중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는것으로 다시 한번 망신을 토틈했다.

트럼프의 《위신》이 말이 아니다나니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멍청이》라고 부르려는가 하면 체육명수들은 트럼프에 의해 판례로 되어온 백악관초청이 취소된것을 두고 《백악관초청취소는 가슴에 다는 명예훈장》이라고 자랑스러워하고있으며 언론사

출연 프로에서 트럼프에 대한 야유와 조롱으로 시간을 채우고있는 판이다.

가관은 미국회와 군부에서도 늑다리미치광이인 트럼프가 언제 제정신을 잃고 발작할지 몰라 대통령에게 부과된 핵무기사용권을 제한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있는것이다.

얼마전 미국회상원에서 대통령의 핵무기사용권을 제한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으며 여기서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대통령이 돈 끼호페 같은 결정과정을 가지고 있는것이 걱정스럽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관할하는 전략사령관을 지낸 인

본사기자 김 철 민



패배자의 협박외교, 강박외교

얼마전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백악관 각료회의라는데서 공화국을 《테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날강도적폭거를 감행하였다.

트럼프는 공화국을 핵으로 전세계를 위협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 국제적인 테로행위를 지원하는 《살인정권》으로 몰아붙이며 공화국에 대한 《테로지원국》 재지정은 이미 오래전에 취해야 할 조치였다는 악담질을 늘어놓았다.

그런가 하면 이번 조치에 이어 공화국은 물론 그와 거래하는 나라들과 개별적인물들에 대한 최고수준의 추가제재와 압박조치가 련속 취해질것이라고 악청을 두구어댔다.

미국무성과 국회, 재무성의 일간이들은 트럼프의 《테로지원국》 재지정발표에 받을 맞추어 공화국의 핵, 미사일개발과 관련한 불법자금류입을 차단한다는 구실밑에 해상운수와 관련되어있는 공화국의 여러 국가기관들과 기업들, 선박들을 추가제재대상으로 지정발표하는 추대를 부리었다.

상전의 비위를 맞추는데 이

궁지에 몰린자의 단말마적발악

풀이 난 미국의 총건들인 일본과 남조선당국자들도 트럼프의 날강도적폭거에 대해 지지환영이니, 기대니 하며 눈꼴사납게 높아대고있다.

단언하건대 트럼프의 지랄발광은 주체조선의 위력앞에 질겁하여 궁지에 몰린 미국의 단말마적발악이다.

힘으로는 조선을 감히 어쩔수 없게 된 미국이 전대미문의 경제적봉쇄와 압박으로라도 기어코 공화국을 압살해보겠다고 극히 치졸한 깡패무리의 본성을 드러내고있는것이다.

미국은 1979년부터 저들에게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들에 《테로지원국》 딱지를 붙이고 있으며 이것을 저들에게 굴종하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들을 압살하기 위한 날강도적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테로지원국》 딱지라는것은 명백히 미국이 저들의 이익에 따라 붙였다 뗐다하는 미국식강권의 도구에 불과하다.

사실상 미국은 다른 주권국가들에 대해 제멋대로 《테로지원국》 딱지를 붙일 아무런 권한도 명분도 없다.

아메리카원주민들을 멸살한 피바다와 해플더미우에 나라를 세우고 건국의 그날로부터 피로 얼룩진 략탈과 살륙, 침략과 전쟁, 무력간섭과 특대형국가테로를 국가의 도락으로 일삼아온 온갖 죄악과 범죄의력사로 하여 미국이라는 나라는 침략과 략탈의 대명사로 불리우고있다.

더우기 제 집안에서조차도 무차별적인 총기란사와 살인강도행위로 언제 한번 피비린내가 가서질줄 모르는것이 다름 아닌 깡패국가 미국이다.

이러한 미국이 제 코드 못씻는 주제에 《국제테로재판관》이라도 되는듯이 다른 주권국가들에 대해 《테로지원국》을 론한다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우롱이며 모독이다.

미국은 결코 조선이 모든 형태의 테로행위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과도 인연이 없으며 주요국제반테로협약들에도 가입하여 테로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국제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있다는것을 모르지 않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조선지배야망의 헛된 망상을 집요하게 추구하며 어떻게 해서나 공화국을 무장해제시키고 고립압살하기 위해 생억지를 부리며 별의별 책동을 다하고있다.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 재지정놀음은 아무런 근거와 타당성이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정치적도발로서 용납할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공화국을 《테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근거자료에 대해 《기밀》이라고 하면서 내놓지 못하고있는 하나의 사실만 놓고서도 저들의 범죄적폭거의 정체가 드러나는것을 막아보

려고 교활하게 높아대는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미국의 날강도적심보를 똑똑히 들여다볼수 있다.

천하에 돌도 없는 흉악테로범죄자들이 감히 공화국에 대해 《테로지원국》 딱지를 붙이며 주체님께 높아대는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세기적인 비극이 아닐수 없다.

나이 70이 넘도록 돈벌이와 주색잡기에만 골통을 쥐어뜯으며 더럽고 치사하게 늙은수전노, 공식석상에서까지 《만약 이반카가 내 딸이 아니라면 나는 그와 련애를 했을것이다.》고 꺼리낌없이 쉼터낸 변태적인 색마 트럼프가 미국대통령병거지를 뒤집어엮으니 로망이 든 머리로 공화국에 대해 무엇을 학습하고 연구할수 있으며 그 아가리에서 어찌 리성과 분별이 나올수 있겠는가.

동네방네 돌아치며 공화국의 《절멸》을 쉼터대며 악담질을

일삼아온 늑다리미치광이 트럼프가 이번에 또다시 공화국에 《테로지원국》 딱지를 붙인것은 날로 강화발전되고있는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에 대한 국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혀있는 미국의 가혹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미국의 행동여부에 따라 차후 대응조치가 결정되게 될것이라는 공화국의 엄숙한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각오해야 한다.

날이 갈수록 무섭게 치솟는 공화국 천만군민의 서슬푸른 증오와 분노가 어느때이든지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서운 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는것을. 그때에는 늑다리 트럼프가 한평생 치부해온 억만금의 재부도 제 화장터의 뿔감으로밖에 달리 되지 않을것이다.

송어가 뛰면 망둥이도 뛰는 격으로 미국의 총건이 되어 설레발치는 일본과 남조선당국도 앓을자리 설자리 가려가며 점잖게 처신하는것이 저들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것이다.

본사기자 서 희

살못된 정책부터 뜯어고쳐야

-
-
-

10일 남조선통일부가 북남경제협력사업을 전면단절시킨 이전 보수 《정권》의 동족대결정책으로 하여 막심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개성공업지구기업들에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2008년 금강산관광중단과 2010년 《5.24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한 다음 일정한 자금을 처음으로 《지원》한다는것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당국은 《추가 지원이라는것자체가 평창히 이례적인것》, 《금강산관광기업들을 비롯한 다른 경제협력기업들도 개성공단기업들과 같은 기준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개성공단기업들의 경우 이번 추가지원으로 피해액의 74.2%를 보상받게 된다.》는 등으로 피해기업들에 큰 혜택을 나누는 듯이 광고하면서 《더이상의 추가 지원은 없다.》고 떠들고 있다.

이것은 북남경제협력사업을 하다가 리명박근혜 《정권》하에서 너무도 처절하게 짓밟히고 짓밟겨진 피해기업들에 대해

이날 당국이 공사장비들을 기지안으로 들여간다는 소식에 접한 단체 성원들과 성주주민들, 원불교인들 100여명은 새벽부터 기지로 통하는 도로의 다리를 자동차들과 짐합

한 우롱이고 기만이다.

다 아는것처럼 개성공업지구기업들을 비롯하여 지난 시기 북남경제협력사업을 하다가 파산위기에 처하고 한지에 나앉은 피해기업들은 리명박, 박근혜역적패당의 극악한 동족대결정책의 희생물이다.

사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힘있게 추동하여온 북남화해협력의 상징, 6.15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 무슨 《퍼주기》와 《돈줄》을 운운하며 리명박역도는 관광객사건을 구실로 10년동안 이어져오던 금강산관광길을 가로막아버렸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모략적인 《천안》호사건을 조작하여 북남사이의 배양과 교류를 전면차단하는 《5.24조치》라는것도 고안해냈다.

박근혜역도는 《북남관계의 마지막 보루》로 그나마 겨우 유지되어오던 개성공업지구를 전면중단시키고 기업인들까지 강제로 철수시키는 망동을 저질렀다.

이로 하여 북남협력사업에 종사하던 남조선의 련관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수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자료에 의하면 북남사이의 협력사업중단으로 남조선에서는 근 3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남조선돈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여 중소기업들과 인민들의 생계가 큰 타격을 받고있다

고 한다. 남조선의 현대경제연구원은 금강산관광중단, 개성공업지구폐쇄 등

들로 가로막고 항의투쟁에 나섰다.

기지주변에 배치되었던 5 000여명의 경찰이 이들의 투쟁을 진압하는데 투입되어 강제해산에 돌아

쳤다. 투쟁참가자들은 굴하지 않고 바줄로 서로 몸을 련결하여 묶거나 자동차밑에 몸을 들이밀고 《폭력경찰 물러가라.》고 쉼터며 결사적으로 항거하였다.

본사기자

으로 2016년까지 입은 경제적피해액은 265억US\$이상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박근혜역적패당의 개성공업지구폐쇄망동으로 120여개의 남조선입주기업을 포함하여 그와 련계된 6 000여개의 기업들이 파산위기에 직면하고 12만 4 000여명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되었다.

오죽하였으면 리명박근혜 《정권》의 북남협력사업과피해악을 두고 남조선의 각계가 《대북제재가 아니라 대남제재》, 《북에 하나를 주지 않으려고 수백을 손해보는 머저리짓》이라고 강력히 비난, 성토했나섰겠는가.

북남협력사업들을 전면단절시킨 이전 보수 《정권》의 악랄한 대결정책과 범죄적망동으로 하여 남조선기업들이 입은 극심한 피해와 고통은 보잘것없는 몇푼의 《지원금》으로 가실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생색내기의 《지원》 늑음으로 피해기업들을 또다시 기만하고 우롱할것이 아니라 그들을 생사위기의 벼랑으로 내몬 반공화국대결정책부터 전면폐기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현 은 경

최근 일본의 아베패당이 《북조선핵, 미사일위협》을 떠들며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있다.

얼마전 아베는 중의원, 참의원합동회의에서 《북조선의 핵시험과 미사일위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안보문제이다.》, 《북조선의 위협에 대처하여 일본의 방위조치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에 피대줄을 세우고 고아댔다.

이보다 앞서서 아베는 동남아시아 나라들에서 진행된 국제회의들에서 여러 외국수반들을 찾아다니며 대조선입방공조에 동참해줄것을 청탁하였는가 하면 국제사회전체가 조선에 강한 압력을 행사하여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쉼터대며 돌아쳤다.

이것은 공화국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발이며 용납 못할 적대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이 이처럼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리는 목적은 댜데 있지 않다. 력대적으로 남을 걸고 리속을 채우는데 이골이 난 섬나라족속들은 공

을 차지하였다. 여기에서 재미를 똑똑히 본 아베패남 못할 적대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이 이처럼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리는 목적은 댜데 있지 않다. 력대적으로 남을 걸고 리속을 채우는데 이골이 난 섬나라족속들은 공

을 차지하였다. 여기에서 재미를 똑똑히 본 아베패남 못할 적대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이 이처럼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리는 목적은 댜데 있지 않다. 력대적으로 남을 걸고 리속을 채우는데 이골이 난 섬나라족속들은 공

수 치 스 러 운 굴 종 의 교

남조선당국이 《균형외교》에 대해 입버릇처럼 외위대고있다.

남조선집권자는 여러 기회에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있는 외교를 하겠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갈등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번영해나가는 관계로 발전하도록 이어주는 매개자적역할을 하겠다.》고 떠벌이

었다. 그런가 하면 《균형외교》가 미국과 중국의 잠에 끼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저들의 가련한 생존전략이라는것을 가리우기 위해 《균형외교를 미국과 중국사이에 서만 하겠다것이 아니다.》, 《아세안나라들, 로씨야, 유럽련합 등과 의 외교관계도 균형을 유지하며 다변화하려고 한다.》, 《신남방정책은 균형외교의 신호탄으로 된다.》고 떠들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균형외교》를 추구하고있는것은 미국에 기대어 생존하면

서도 아시아대륙에 자리잡고있는 남조선의 지정학적요인을 무시할수 없다는데로부터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할수밖에 없는 가련한 처지에 있어 양쪽의 비위를 다같이 맞추며 살아가려는 사대굴종적인 립장의 반영이다.

그것은 이미 박근혜당이 내들었다가 실패의 고배를 마신 《균형외교》의 복사판이다. 이른바 《균형외교》를 표방해온 박근혜 《정권》의 《외교정책》은 뒤집어보면 사실상 여기저기에 몸을 파는 늑거리 《창녀외교》였다. 지난 시기 박근혜가 《균형외교》를 떠들며 멋없이 높아대다가 집권 1년도 못되어 주변국들의 행태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지어 《누구의 편에 서겠는가.》하는 량자택일까지 강요당하는 신세가 된것은 외세의존과 사대매국책동의 응당한 결과였다.

그러나 현 남조선당국은 여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이전 박근혜 《정권》시기의 《외교정책》

을 차지하였다. 여기에서 재미를 똑똑히 본 아베패남 못할 적대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이 이처럼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리는 목적은 댜데 있지 않다. 력대적으로 남을 걸고 리속을 채우는데 이골이 난 섬나라족속들은 공

을 차지하였다. 여기에서 재미를 똑똑히 본 아베패남 못할 적대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이 이처럼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리는 목적은 댜데 있지 않다. 력대적으로 남을 걸고 리속을 채우는데 이골이 난 섬나라족속들은 공

을 차지하였다. 여기에서 재미를 똑똑히 본 아베패남 못할 적대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이 이처럼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리는 목적은 댜데 있지 않다. 력대적으로 남을 걸고 리속을 채우는데 이골이 난 섬나라족속들은 공

을 차지하였다. 여기에서 재미를 똑똑히 본 아베패남 못할 적대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이 이처럼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리는 목적은 댜데 있지 않다. 력대적으로 남을 걸고 리속을 채우는데 이골이 난 섬나라족속들은 공

를 그대로 답습하고있는 것이다.

다 아는것처럼 남조선당국은 외세에 종속되어 자주적대는 물론 그 어떤 원칙도 없으며 여기저기에 빌붙어 눈치를 보아야만 살아갈수 있는 가련한 처지에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지배외사슬에 얽매어 꼼짝할수 없는 남조선당국은 《균형외교》에 대해 떠들면서도 벌써부터 중국과 약속한 《〈싸드〉 추가배치 반대》, 《미국미사일방위체계불참》, 《〈한미일군사동맹거부〉 등의 《3불원칙》을 쉼터리고 중국의 눈을 속여가며 미국상전의 요구에 순응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의 《균형외교》가 세인들이 평하고있는것처럼 《센드위치외교》, 《줄라기외교》, 《족박외교》, 《눈치외교》로서 사대적인 비굴함과 굴욕만을 드러내는 수치스러운 외교라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 있다.

중미사이의 패권싸움이 치열한 속에서 안보

를 공격하는 순항미사일개발에 나서는 등 전쟁을 할수 있는 《보통국가》야망실현으로 한발자국씩 접근하고있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너무도 알고야 한다. 군국주의마차에 올라앉아 파멸의 낭떠러지를 향해

미친듯이 질주하는 아베패와 그 일당이야말로 섬나라의 전도와 일본국민들의 운명을 위협하는 장본인들이라는것을.

하기에 지금 일본사회 내부에서는 아베패당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의 돌격대가 되어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에 매달리는데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나오고 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

는 미국에 의존하여 보장 받고 경제적리득은 중국에 물어 얻겠다는것은 어리석은것이며 결국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가 되고말것이다. 위생톤에도 날아가고 천안문방루에도 올라가 노족을 피웠지만 동네북신세가 되어 사방에서 얻어맞다가 수치스러운 파멸을 당한 박근혜의 비참한 운명이 바로 그것을 보여 주었다.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도 당국이 《균형외교》를 떠들고있는데 대해 《복잡다단한 외교안보환경변화에 대처하여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외교를 해보려 하고있다.》, 《자칫 하다가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될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외교다운 외교를 하고싶다면 외세의 손탁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민족우선, 민족중조실현에 기여할수 있는 자주외교의 길에 들어서야 마땅하다.

리 명 진

책과 아시아태평양지배 전략의 돌격대가 되어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격화시키고있는 일본반동들은 조선민족과 아시아 인민들의 불구대천의 원수이고 세계평화의 압적 존재이다. 력사적으로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해악만을 끼쳐온 천년속적 일본은 사회와 보상을 할 대신 해묵은 죄악에 새로운 죄악을 덧쌓으면서 교활하게 높아대며 공화국 천만군민의 분노와 적개심을 더욱 활화산처럼 뿜어번지게 하고있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눈앞에서 벌려대는 섬나라의 요망스러운 망동을 결코 지켜만 보고있지 않을것이며 최악의 대가를 받드시 천백배로 받아 내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황 금 속

본사기자 서 희

본사기자 서 희

본사기자 서 희

본사기자 서 희

전쟁머슴군의 무분별한 무력증강소동

남조선당국이 《북의 핵, 미사일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목밑에 최신 전쟁장비증강책동에 그 어느때보다 혈안이 되고 있다.

17일 남조선당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라는것을 열고 이른바 《대북방어력강화》를 위한 전력보강방안들을 심의, 결정하였다. 여기서 남조선당국은 지난 6월부터 동계결함으로 생산과 운영을 일시중지하였던 기동직승기 《수리온》에 대한 생산을 다시 시작하여 연말까지 30대를 만들어 료군에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의 해상기반용 고고도요격미사일체계인 《SM-3》의 도입을 리유로 생산을 중단하였던 저고도지상대공중미사일 《M-SAM》을 9억US\$의 자금을 들여 생산을 재개하여 다음해부터 실전배비하는 한편 탄도탄조기경보레이다를 해외에서 끌어들이기로 하였다.

그리고 《K-2》 망크생산, 고정형장거리레이다 체계개발, 중적외선섬광탄체계개발계획 등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중인 무기와 첨단장비들의 생산을 적극 추진한다고 소동을 피우고있다.

이러한 무력증강책동은 가득이나 긴장한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쓸개빠진 반민족적망동이다.

남조선당국이 그 누구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을 내걸고 무력증강소동을 전례없이 강화하고있는것은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처사이다.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는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해치려고 달려드는 적대세력들의 날강도적인 전횡에 대처한 자위적조치로서 여기에 문제시될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미, 일상전의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반공화국제체놀음에 앞장서는것도 성차지 않아 매일과 같이 외세의 핵전략사들을 끌어들이고 북침불장난소동을 광란적으로 벌임으로써 조선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최악의 위기를 조성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당국은 외세의 핵항공포합타격단을 3개씩이나 끌어 들여 동족을 겨냥한 연합해상훈련을 사상 최대 규모로 감행하였으며 서해열점수역에서 미해병대와 북침전연습에 광분하였다.

보다싶이 조선반도에 오늘과 같이 엄중한 긴장상태를 조성한 장본인은 미국과 그에 추종한 남조선당국이며 그들 자신이 공화국을 위협하고있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이 《핵, 미사일위협》이니 뭐니 하고 떠들며 벌려놓고있는 무력증강소동이 그 무슨 《위협》을 느껴서가 아니라 외세의 군사적공포결락을 강화하며 그에 의거하여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책동이라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무장장비 개발소동에 계속 발악적으로 매달리고있는것은 공화국을 비한 군사적렬세를 만회하고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범죄적기도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세계가 공인하는 주체의 핵강국, 군사강국인

공화국과 맞서보겠다고 자체무장장비개발이요 뭐요 하며 설치대고있는것은 맨머리로 바위를 들이받겠다는것과 같은 어리석은짓이다.

공화국의 강위력한 군사력앞에서 남조선당국이 하느님처럼 믿는 미국의 《군사적보호》도, 그 어떤 최신무기도 맥을 추지 못한다.

남조선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대북정보》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해마다 엄청난 자금을 퍼부어 미국제 무기들을 끌어들이고있지만 그것은 이미 낡은대로 낡은 파고철에 불과하며 자체로 개발하였다고 하는 무장장비에서도 사고가 꼬리를 물어 풀치거리로 되고있는 형편이다.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겨레의 운명을 지켜주는 동족의 전쟁억제력에 무모한 무장장비도입과 개발로 맞서보려고 날뛰다가는 가장 비참한 과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김성숙

구린내나는 《자유한국당》의 범법행위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의 측근들을 비롯하여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이 저지른 권력형부정부패행위들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다.

남조선검찰은 박근혜집권시기 《새누리당》의원내대표였던 《자유한국당》의원 원유철이 기업들로부터 뇌물과 돈을 받아먹은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하면서 그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하였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정권》하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자유한국당》의원 최경환이 전 《국정원》원장 리병기로부터 10만US\$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고 하면서 정식 수사에 착수하였다.

또한 박근혜탄핵 때 년의 《호위무사》로 자처해나섰던 《자유한국당》의원 리우현이 기업체로부터 수천US\$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하면서 빠른 시일안에 소환조사하겠다는 립장도 밝혔다.

현재 남조선검찰은 《국정원특수활동비》상 남사건에 다른 《자유한국당》의원들도 련루된 정황이 있다고 하면서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한 상태에 있다.

바빠맞은 《자유한국당》패들은 《(정부)의 정치보복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하루밤이면 한명씩 사라지고있다.》, 《대속청이다.》, 《당이 멸족위기에 처하게 될것이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당국이 (자유한국당)을 적폐정당으로 거세게 반발하고있다.》원래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어느놈이고 할것없이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사환군노릇을 하면서 돈을 떼먹고 상납받는 등 온갖 부정부패에 찌들어 썩어 썩어 버린 범죄무리이다.

전당대회돈봉투사건, 《공천헌금》사건 등 최근년간 남조선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큼직한 부정부패사건들이 모두 《자유한국당》패거리들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들이다. 남조선민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유한국당》의 전신들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대해 《도적당》, 《(만사돈통)정당》, 《돈이면 만사OK당》, 《차떼기당》, 《부패원조당》으로 단죄규탄해왔다.

이런에 달미가 잠힌자들의 범죄는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저지른 부정부패행위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온갖 적폐의 오물장인 보수패당을 송두리채 청산해 버리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다.

전철호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김영삼역도를 내세우고있는 속심은 만데 있지 않다.

박근혜역도의 탄핵이후 지리멸렬된 보수층을 김영삼역도를 《정신적구심점》으로 하여 집결시키

무덤속의 망령까지 끄집어낸다

고 저들을 《정통보수정당》으로 둔갑시켜 《바른정당》 등과의 《주도권쟁탈전》에서 우위를 차지해 보려는것이다. 또한 김영삼역도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해 내들었던 《민주주의》로 보수에 등을 돌려대고있는 청년층을 비롯한 각계의 민심을 유혹하여 지지기반을 확대하려 하는 교활한 술책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죽어뻘진 김영삼역도를 추어올리는 해피한 추태를 부릴수록 그것은 보수진영을 규합할만 한 인물이 없는 그들의 가련한 처지만 부각시킬뿐이다. 과연 김영삼이나 내세운다고 《자유한국당》이 《정통보수정당》, 《민주주의수호정당》으로 둔갑할수 있으며 사분오렬되어가고

있는 보수세력내의 《주도권》을 장악할수 있겠는가.

지금 김영삼을 보수의 《정신적구심점》, 보수의 《상징》으로 한것 추켜세우는것은 그의 《정치적후계자》, 《보수의 대표자》로 나서서 권력야욕을 실현해보려는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의 암둔한 머리에서 나온 《기발한 착상》이다.

그러나 홍준표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 김영삼역도는 비렬한 《3당야합》으로 파쇼독재 《정권》을 연장시킨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문민》과

오물은 들출수록 구린내가 나는 법이다. 날이 갈수록 퀴퀴한 냄새를 풍기며 계속 드러나고있는 박근혜의 죄악이 이를 실물로 보여주고있다.

최근에는 박근혜역도와 그 일당이 정보원으로부터 수백만US\$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저들의 반역통치를 유지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탕진한 사실이 드러나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지금 이 사건으로 하여 전 정보원 원장 남재준과 리병기가 검찰에 구속되었다. 남조선검찰은 법원에서 《특수활동비》상납이 《박근혜의 지시에 따른것》이었다고 인정하면서 책임을 역도년에게 떠밀어 겨우 구속을 면한 전 정보원 원장 리병호에 대해서도 구속명장을 채취하고 하고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조선에서는 박근혜일당의 퇴물행위를 말끔히 파헤쳐 징벌을 가하는것과 함께 파쇼독압, 모략의 소

썩팡이다. 오죽하면 남조선인민들이 역도를 가리켜 《망크우에 올라선 문민파쇼》, 《문민독재광》이라며 저주를 퍼부고있겠는가.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김영삼의 망령까지 불러내어 더러운 집권야욕을 실현하는데 써먹으려고 발광하지만 민심은 이미 박근혜년과 함께 역적당에 사형선고를 내리었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송장의 망령까지 끄집어내어 최후발악할수록 그들스스로가 력사의 무덤속에 처박히는 시간만 빨라지게 할뿐이다.

본사기자 류현철

과 함께 터져나온 정보원 《대선》개입사건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정보원패거리들은 《새누리당》후보 박근혜의 당선에 위태롭게 되자 자기들이 보유하고있는 수단들과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발동하여 인터넷에 야당후보들을 헐뜯고 여론을 여당후보에게

갈수록 드러나는 보수 《정권》의 죄악

취고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각계 진보적인사들과 애국적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처형학살하였으며 파쇼모략과 인권유린행위를 일삼는 등 력대 독재자들의 손발노릇을 해왔다.

특히 리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은 지난 기간 정보원을 제 손아귀에 거머쥐고 《집권안보》의 도구로 써먹으면서 무시한 파쇼독압통치와 반공화국모략책동에 광분해왔다.

박근혜 《정권》의 출현

과 함께 터져나온 정보원 《대선》개입사건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정보원패거리들은 《새누리당》후보 박근혜의 당선에 위태롭게 되자 자기들이 보유하고있는 수단들과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발동하여 인터넷에 야당후보들을 헐뜯고 여론을 여당후보에게

최규탄하는 각계층의 대중적투쟁이 고조되자 통합진보당의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이라는것을 또다시 조작하고는 진보정당을 강제로 해산하고 이를 구실로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탄압말살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보수 《정권》시기 반공화국 《인권》모략과 배려

이후 박근혜당은 저들의 선거부정행위를 단

운운하며 박근혜와 정보원을 적극 비호후둔해나서고있다. 《자유한국당》의 한 친박계인물은 이번 사건의 혐의가 자기에게 쏠리자 《돈받으는 것이 사실이라면 할복자살》 하겠다는 추태까지 부리었다.

보수세력들의 란동은 꺼져가는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 미처날뛰는 역적무리들의 추악한 물팔을 똑똑히 보여주었고 있으며 그들이 박근혜역도와 함께 단호히 끌어버려야 할 추악한 공범집단이라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박근혜가 저지른 수많은 죄악은 아직 다 파헤쳐지지 않았으며 반역무리, 특등범죄자들을 징벌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도 끝나지 않았다. 보수패당이 저들의 죄악을 한사코 부정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의 보수 《정권》적폐청산투쟁에 도전해나서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파멸을 더욱 촉진시킬뿐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악페청산 넘어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북미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이 철수하는 그날을 향해 힘차게 투쟁하자!》

서울의 미국대사관 앞에서 집회와 시위투쟁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민주당이 20일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앞거리에서 악페청산과 사회대개혁, 조미평화협정 체결, 남조선강점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리명박을 즉시 구속하며 적폐로 찌들어 적폐청산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을 당장 해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리명박역도의 최악은 남조선에 《가계부채》 1 400조원, 《국가채무》 1 000조원, 《공공부채》 800조원이 차넘치는 빚덩어리로 만들고 4대강사업의 미명하에 22조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하였으며 《5.24조치》로 통일을 가로막고 정보원과 국방부를 내세운 부정협잡선수로 박근혜를 《대통령》 자리에 올려놓았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민중의 힘으로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살아가

는 새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미국대문에 남조선은 많은 무기를 사들이고 전쟁연습을 제일 많이 하고있으며 미군유지비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지불하고 미국은 이 유지비로 돈을 불구고있다고 그들은 규탄하였다.

그들은 초불항쟁의 성과를 말아먹는 전쟁위기가 닥쳐왔다고 하면서 적폐청산투쟁을 강도높이 벌리고 《국정》통락세력의 잔당들을 청산하여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민주주의를 넘원하고 새 사회를 갈망해온 국민들의 투쟁으로 박근혜와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통락세력들을 구치소에 처넣었지만 부정부패의 특검범죄자인 리명박은 빠졌이 해위를 돌아섰다고 하면서 그들은 《국정》통락에 책임있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현 《정부》가 입만 벌리면 《전쟁불바다》를 지

키면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격화시키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동조하며 북침전쟁연습을 벌리고있다고 단죄하였다.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악페를 청산하고 사회개혁을 완성하며 민생과탄과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외세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길로 나가는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당국은 앞으로 력사의 심판을 받을 《정부》로 남겠는가 아니면 력사에 기록될 《정부》로 남겠는가 하는것을 선택하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정보원과 검찰, 보안수사대가 존재하는것도 악페이며 철저한 청산대상이라고 성토했었다.

악페를 청산하고 반통일악법, 파쇼악법을 철폐하는것은 통일된 미래를 열어가는것과도 관련되어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통일을 반대하고 전쟁위기를 격화시켜 저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반통일세력을 청산해

야 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악페청산 넘어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북미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이 철수하는 그날을 향해 힘차게 투쟁하자!》고 호소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리명박을 구속하자!》, 《정보원을 해체하자!》, 《민중민주와 자주통일 이루하자!》 등의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집회에서는 《당장 리명박을 구속하고 악페청산의 속도를 높이라!》라는 제목의 성명이 발표되었다.

성명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기가 계속 고조되고있는 속에 리명박을 비롯한 특검범죄자들이 마음대로 활개치고있어 현 《정부》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갈수록 높아지고있다고 밝혔다.

전 정보원 원장 원세훈을 비롯한 일부 공범자들이 구속되었지만 리명박을 비롯한 많은 적폐세력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악페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성

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현 정세가 악페청산을 더이상 미룰수 없는 초미의 과제로 제기하고있으며 무엇보다도 리명박을 당장 구속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3개의 미국핵항공모함타격단이 동원되어 초유의 북침협전전쟁연습이 감행된 후에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위기가 지속되고 전쟁미치광이 트럼프는 정치적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벌린 전쟁연습에 탕진한 천문학적액수의 비용을 남조선에 들씌웠으며 이번 남조선행 각기간 220억US\$의 국민혈세를 뜯어갔다고 성명은 폭로하였다.

악페청산은 악페세력들을 구속하는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회대의 파쇼악법인 《보안법》철폐와 파쇼적독압기구인 정보원, 공안검찰, 보안수사대를 시급히 해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현 《정부》가 뼈속깊이 친미종미 《정부》였던

리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도 얼굴을 붉힐 정도로 친미종미적이라는 내외의 비판을 심각히 새기고 더이상 《트럼프의 삼살개》라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면하여 리명박을 구속하며 악페청산의 속도를 높이고 외세주종정체를 민족공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리명박 구속하라!》, 《보안법철폐! 정보원해체!》, 《악페청산! 전쟁반대!》, 《외세배격! 민족공조!》, 《싸드가 지고 미군 떠나라!》라고 쓴 프랑카드와 선전물들,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갇혀있는 리명박, 박근혜일당의 몰골을 보여주는 그림과 남조선정당, 단체들의 반트럼프, 반미투쟁모습이 형상되고 《북침전쟁연습중단!》이라는 글이 적여진 그림을 들고 《세월》호광장을 지나 《정부》청사까지 시위행진을 하였다.

본사기자



《소탐대실》의 의미를 되새겨보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박근혜가 집권기간에 벌려놓았던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놀음을 벌리고 있어 각계의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현 남조선당국자가 얼마 전 동남아시아나라들을 행각하면서 청와대참모들에게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비롯하여 이전 《정부》의 정책들 가운데서 성과가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외교부 장관도 《새마을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떠들어댔다.

이전 《정권》시기의 적폐들을 청산한다며 매일같이 부산을 피워대는 남조선당국이 《유신》독재자의 행동을 찬미하는 놀음을 벌리려는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과 분노를 표시하는것은 당연하다.

《새마을운동》으로 말하면 박정희역도가 1970년대부터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키운다는 명목 밑에 《생활태도혁신》, 《환경개선》, 《소득증대》를 통해 라후한 농촌을 《근대화》한다면 벌려놓았던것으로서 실상은 남조선농민들의 고향을 한방울이라도 더 짜내기 위해 조직한 놀음이었다. 하기에 지금도 남조선인민들은 《유신》독재자가 고안해낸 《새마을운동》을 악몽으로 떠올리면서 《사람들을 피

롭히고 못살게 한 운동》, 《수탈운동》이었다며 침울 났고있다.

《유신》독재자의 종말과 함께 력사의 시궁창에 처박혔던 《새마을운동》을 다시 꺼내든것은 박근혜역도이다. 박근혜역도는 집권하여 제 예비의 《명예회복》과 제년의 인기를 올려보기 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치면서 《새마을운동》의 부활에 극성을 다하였다.

이런 불미스러운것으로 하여 현 당국은 박근혜역도가 혈세를 탕진하면서 벌려놓았던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비롯한 각종 정책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겠다고 떠들어댔다.

그런데 그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놀음을 벌리고있으니 머리가 돌아도 한참 돌았다고 해야 할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적폐추종행위이다.

현 남조선당국이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것은 남조선의 당국이 《국민대통합》의 미명하에 또 어떤것을 벌려놓을지는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박근혜의 과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어놓기도 한다. 남조선당국은 눈앞의 작은것을 탐내다가는 도리어 큰것을 놓쳐버린다는 《소탐대실》의 의미를 새겨보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김 응 철

최근 남조선에서 적폐청산이 갈수록 심화되는 속에 어둠속에 가리워져있던 리명박, 박근혜집권시기의 온갖 적폐들이 하나둘 밝혀지고있다. 《국정원》정치개입사건, 싸이버사령부의 내갈공작사건, 《국무총리》실특수활동비상납사건, 《국정원》특수활동비상납사건, 《세월》호참사은폐사건, 북남수뇌상봉담화록루출사건 등 이전 보수 《정권》들시기에 저질러진 특대형의 부정부패행위들은 만사사람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날에 날마다 터져나오는 각양각색의 사건들에 당황한 보수세력들은 그것을 애써 부인하며 과멸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려고 필사의 발악을 하고있다.

지금 리명박역도는 당국의 적폐청산움직임을 두고 《정치보복》, 《갈등과 분열조작》으로 비난하며 전면 도전해나서고있는가 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같은 보수정당들은 《보수진영수청》에 목표를 둔 광란의 칼춤, 《정권》이 바뀌면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처사》라고 피대를 들구면서 보수세력들을 재규합하여 저항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지어 리명박패거리들과 보수야당들은 로무현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 죽어있는 권력도 저항할 능력이 있다고 쫓겨대며 현 당국의 적폐청산에 반항하는 한편 검찰과 정보원을 《정

권의 총견》이라고 혈뜰으면서 수사결과를 믿을수 없다고 악을 써대고있다.

이런 속에서 그놈이 그놈이라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정부》는 정치보복수사를 그만해야 한다. 《법》집행의 범위를 넘어서고있다는 등으로 보수세력들과 맞장구를 치면서 적폐청산에 대한 부정적여론을 확산시키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다.

저들이 지은 죄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며 반발해나서는 보수역적무리들의 과렴치한

적폐무리가 독을 쓴다

행태에 격분한 남조선 각계층은 지금 리명박역도를 당장 구속하고 적폐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적폐의 본산인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면서 보수 《정권》의 적폐를 말끔히 청산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의지를 표명하고있다.

너무도 옳은 주장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오늘 남조선민심은 리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하루빨리 청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사회전반에 널려져있는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언제가도 민심이 바라는 사회적정의와 민중의 참된 권리를 실현할수 없다. 이런것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은 적폐청산의 기본대상은 철창속의 박근혜역도

와 함께 박근혜 《정권》을 산생시킨 리명박역도라고 하면서 하루속히 력사의 심판장에 내세울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있는 것이다.

지금 보수세력들이 저들의 정신적지주로 떠받들던 박근혜역도에 이어 리명박역도까지 철창속의 위신세가 될가봐 두려워 적폐청산을 《정치보복》, 《갈등과 분열조작》으로 비난하고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수천만 초불민심의 분노심을 부채질해줄뿐이다. 리명박역도가 이런저런 구차한 변명과 구실로 수사의 칼날을 피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할수록 박근혜보다 더한 부정

부패의 왕초로서의 추악한 정체만 드러낼뿐이다.

언제 감옥신세가 될지 몰라 두려움속에 한숨만 쉬고있는 리명박역도를 구원해보겠다고 서로 물고뜯으며 개싸움을 벌리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야합하여 적폐청산에 반발해나서고 보수언론들까지 여기에 가세하고있는것은 그들 역시 적폐청산대상이라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증명해주고있다.

실맞은 독사는 언제든지 살아나 다시 독을 쓰며 인명피해를 낸다. 적폐청산으로 최악의 궁지에 몰려 반발해나서는 보수세력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지 않는다면 그로 하여 초래되는 후과는 매우 엄중하다. 그때 가서 후회는 때는 늦은것이다.

본사기자 김 영 준

《백두산 8경》 (7)

천하제일명산인 백두산의 절경가운데는 눈속에 핀 만병초도 있다. 만병초는 진달래과의 사철 푸른 넓은잎떨기 나무로서 노란만병초, 백두산만병초, 노란쪽 갈나무라고도 불리워 왔다. 만병초라는 이름은 만가지 병을 다 낫게 해 주는 약재로 쓰인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만병초는 꽃이 아름다울뿐 아니라 생활력이 강한 것으로 하여 백두산과 같이 높고 추운 지대에서 자라며 특히 눈속에서도 꽃이 피는 것으로 하여 고산지대의 풍치를 한층 돋구어준다.

높이는 20~50cm이고 줄기는 옆으로 자라며 많은 가지를 친다. 잎새는 길쭉근 모양 또는 거꿀달걀모양이며 번두리는 뒤로 제껴져 원통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

피는데 꽃받침은 매우 작고 꽃갓은 종모양이며 끝부분이 다섯 갈래로 갈라진다. 백두산천지호반에 피어나는 만병초는 줄기에 비하여 꽃송이가 크고

름다움때문만이 아니다. 한겨울의 눈속에 핀 백두산의 만병초에는 어떠한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일련단심 령도자만을 따르고 받드는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굳센 기상이 어려웠다. 백두산의 만병초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 따라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겨 오고야 말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다져 주며 세세년년 만발할 것이다.

눈속에 핀 만병초

것은 흡수한 수분의 증발을 막고 영양물질을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눈속에서도 활짝 피어나는 만병초의 아름다운 모습이야말로 만사람의 경탄을 자아내는 백두산의 황홀하고 뛰어난 절경이다. 눈속에 핀 만병초가 사 람들을 그토록 매혹시키는 것은 단순한 꽃의 아

최근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치료에 적용된 혼종료법이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새로 등록되었다. 혼종료법은 고려약을 풀이거나 태울 때 생기는 약물증기나 연기를 몸의 일정한 부위에 쏘이거나 그 달임물로 씻어 병을 치료하는 전통적인 고려의학치료방법의 하나이다. 이에 대하여 《동의보감》, 《의방유취》, 《향약집성방》 등 옛 문

국가비물질문화유산

혼종료법 고 끓일 때 나오는 증기를 질병부위에 직접 쏘이는 치료방법이며 연훈법은 약초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를 쏘이거나 마시는 치료법이다. 혼세법은 먼저 고려약을 달일 때 나오는 증기로 약의 부위를 쏘인 다음 달임약으로 병조를 씻거나 천을 약물에 적시

고 덥혀 찜질하는 것을 말한다. 혼종료법은 환자에게 부작용이 없고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온열 자극치 료와 그로 인한 땀내기 치료효과, 약연기에 의한 약리효과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우수한 치료법이다. 최근년간 고려의학연구원을 비롯한 치료예방단위 등에서 혼종료법을 받아들여 완치율을 보다 높이고 있다.

겨울철 피부보호에 좋은 과일과 남새 몇가지

겨울철 피부보호에 좋은 과일과 남새로는 사과, 석류, 호박, 대추, 락화생, 포도, 버섯이다. 사과에는 사과산과 비타민, 당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의 부드러움과 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소화불량은 피부에 매우 나쁜 후과를 미치는데 소화를 돕는 데는 사과만한 과일이 없다. 석류는 여성들에게 가장 유익한 과일로 인정받

고 있다. 석류에는 천연에 스트론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피부의 탄성을 유지하고 주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 호박에는 β-카로틴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가려움증과 같은 피부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좋은 작용을 한다. 대추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E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피부미백효과를 나타낼뿐아

니라 피부의 항산화능력도 높여준다. 대추에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 질병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대추를 자주 간식으로 먹으면 로화를 방지할 수 있다. 락화생에는 소화흡수가 잘되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으며 비타민E는 많은 수분을 잡아두어 피부를 부드럽게 해준다. 포도는 기혈을 보하고 비장과 위장을 튼튼

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포도씨에는 항산화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화장품의 원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버섯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식용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반면에 지방이 적고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로화를 지연시키고 주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사화 리규보와 《해좌7현》 (5)

글 전철호, 그림 박봉혁

리인로의 말에 리규보는 머리를 들 수 없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어제 술에 취해서 지었던 즉흥시가 생각나서였다. 리인로는 도란에 빠져 생활고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가슴아파서 자나 깨나 그들을 동정하며 근심하는데 바른 글을 쓰겠다던 자신이 시시껄렁한 신변잡사나 그리는 시를 읊조렸으니... 하루종일 가야 별로 옷을 줄 모른다는 립춘의 절절한 말소리에 리규보는 머리를 들었다. 《이보게 백운거사! 나도 현정을 대신하여 한마디 하려네. 지난날 현정도 점점 기울어지는 이 나라 현실을 내놓고 비난하는 글을 짓지 않았더라면 좋은 벼슬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렸을거네. 그가 백운거사에게 남다른 관심을 돌렸던것은 우리 《해좌7현》이 늙어가니 앞일

이 걱정돼서였네. 그대 글을 깨우쳤다는 사람이 더러운 세상을 보고도 외면해야 옳겠나? 백운거사는 누구와도 견줄수 없는 뛰어난 시재는 있으나 눈물겨운 백성살이는 돌아보지 않다가니 글눈이 무디어 참된 시를 쓸수 없었다고 보네. 바로 이런 말을 현정이 하고 싶어했다네.》 리규보는 맥박이 멎는 듯 하였다. 초달이라면 이보다 더 맵싸게 안기는 초달이 어데 있겠는가. 립춘은 대바른 글을 써 내는 탓에 조정의 미움을 사서 여러번 과거에 응시했지만 급제하지 못하였다. 바른 글을 짓는다는 그 하나때문에 《무신의란》 때 온 집안이 몰살당하고 겨우 립춘만이 몸을 빼어 살아남을수 있었다. 불의한 세상에 맞서 피까지 흘리면서 바른 글을 지어내는 붓대를 멈추지

경제강국건설을 추동하는 과학기술성과들

얼마전 평양시 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전시회에는 과학기술부문, 전력공업부문, 화학공업부문, 기계공업부문, 경공업부문, 농업부문, 의학부문에서 이룩한 과학기술성과들이 출품되었다. 리종일 평양기계종합대학 운수기계대학 교원은 자기 대학에서 전시한 새형의 80hp 트랙트르 기관의 기본설계지표결정과 관련한 전시물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금성트랙트르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자력자강의 무쇠철마라고 높이 평가하신 새형의 80hp 트랙트르 기관의 가스분배위상최량화와 제작공정설계의 과학성, 현대화를 실현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평양가금생산국 서포타공장에서 제 28차 전국정보기술성과전시회 《통신-1》을 내놓았다. 집

집승의 성장발육에 좋은 영향을 주는 우리 식의 먹이첨가제는 경제효과성이 크고 고기생산량을 훨씬 늘리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여 축산부문 일꾼들과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뿐이 아니었다. 우리 식의 포장공정을 새롭게 확립하여 수입설비들에 비해 원가를 훨씬 줄이고 무인화, 자동화를 실현한 우유제품포장조류공정, 종전설비를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피복제품 생산을 훨씬 끌어올린 무연탄에 의한 완성다림용 증기보일러, 수입설비보다 훨씬 적은 원가를 들이면서도 저압계통에서 력률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저압자동력보상기 등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실현에서 이룩한 과학기술성과들이 참관자들에게 자력자강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번영이 있다는 확신을 굳게 해주었다. 평양시 락랑구역도로시 설관리소에서 자체로 개발한 태양발전지도로청소기를 보면서 참관자들은 자연에너지를 리용하여 도로관리의 기계화, 무공해를 실현하면서도 많은 로력을 절약할수 있어 좋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평양시 모란봉구역연료 사업소에서 출품한 비소



제 28차 전국정보기술성과전시회



아서 글을 쓰겠소이다.》 조통이 벌떡 일어나 리규보의 손을 으스스하게 움켜잡았다. 《그게 참말로 하는 소리가? 잘 생각했네, 잘생각했어.》 리담지도 회색이 만만해서 소리쳤다.

《아, 우리 피사골의 전도가 창창하도다.》 이때 리인로가 손을 쳐들자 술렁대던 좌중이 조용해졌다. 《백운거사! 여기에 남고 말고 하는것은 큰일이 아닐세. 난 백운거사가 늘 백성살이를 목격한 현정처럼 살길 바라네. 그

시의 제목은 《햇곡식의 노래》라고 달았다. 《해좌7현》들은 모두 모여들어 시를 읽어보고 그만하면 잘되었다고 칭찬하였다. 리인로가 한마디 보태기를 좀더 백성들의 울분이 강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리규보는 더 좋은 시를 써내리라는 마음을 먹고 조통과 함께 덕수, 장단으로 해서 립강, 강음, 토산, 우봉 등의 개경근처의 시골들뿐 아니라 평주, 곡주, 봉주 등 서해의 여러 고을들을 돌아보고 다음해 가을이 되어서야 피사골로 돌아왔다. 여러 마을들을 찾아다니며 얻어먹고 자면서 체험한 백성살이는 실로 리규보의 시창작에 큰 도움을 주었다. 리규보는 피사골에 오자마자 밤낮으로 붓을 달리었다. 정각에 둘러앉은 《해좌7현》들은 리규보의 손끝에서 시들이 떨어지는 줄을 지켜보면서 감탄해마지 않았다.